

<2017년 1월 22일 주일말씀>

꿈을 두고 실천하자

본 문 야고보서 1장 22-25절

『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
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
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
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
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
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나보고 있는 자는
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
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오늘은 ‘**올해 섭리사의 꿈**’ 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.
- ◆ <지난해 섭리사의 꿈>은
첫 번째 괴석은 큰 기대를 걸고 얻고자 하여 갔는데 못 얻고,
그 대신 ‘더 가치 있고 좋은 호랑이 수석’ 을
주인이 허락하여 얻게 되는 꿈이었습니다.

2016년 1년 동안, 이 꿈대로 됐습니다.

- ◆ <꿈 계시>를 주면,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.

그래야 때가 되어 꿈대로 기회가 오면
실천하여 얻고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.

그래서 작년에도 수시로 ‘꿈 계시 이야기’ 를 해 줬습니다.

- ◆ 또 <꿈 계시>를 주면, 꿈을 이루도록 1년 365일 기도해야 됩니다.
그러다 기회가 오면, 신속히 확인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.
그래야 얻고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.

- ◆ 작년에도 ‘꿈 계시를 잊고 살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’ 은
기회가 왔을 때 실천하지 못하여 꿈을 못 이루고 안타깝게 됐습니다.

<꿈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실천한 자>만 꿈대로 받았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꿈대로 해 주셨습니다.

섭리사의 앞날을 위해서 꿈대로 해 주셨고,
각 교회들과 각 개인에게도 꿈대로 해 주셨습니다.

- ◆ 오늘 ‘2017년 꿈 이야기’ 를 해 줄 텐데,
올해 끝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.

잊으면, 이제는 큰일 납니다.

그 날이 꿈을 이루는 날인데 잊으면 못 이루고 끝납니다.

패자가 되고, 사탄에게 먹살을 잡혀 끌려가고,

희망을 못 이루게 됩니다.

- ◆ 이제 <올해의 꿈>을 말해 줄 테니,
모두 잘 듣고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섭게 실천하여
올해의 꿈은 꼭 이루기를 축원합니다!

<꿈 계시>

- ◆ 올해 1월 1일 새벽에 한 꿈을 꿔습니다.
다투는 자와 경주하며 겨루는 꿈이었습니다.
한편으로는 쫓기는 꿈이었습니다.
- ◆ 월명동 도착을 목표로 하고
진산에서 앞섬골을 거쳐서 뛰는 꿈이었습니다.

상대는 나보다 잘 뛰었는데, ‘장거리 마라톤 선수’였습니다.
경주는 ‘상대와 나’ 둘뿐이었습니다.
- ◆ 힘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고,
나는 더욱 힘을 다해 월명동을 향해서 뛰었습니다.

숨이 가빠서 기진맥진하면서 뛰었는데,
길가에서 이 광경을 구경하던 메뚜기가
앞에서 나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.

얼마나 힘든지, 메뚜기가 끌어도 도움이 됐습니다.
그 도움을 받아서, 거의 날면서 가볍게 뛰었습니다.
- ◆ 성황당 바로 밑까지 와서 뒤를 쳐다보니,

상대는 왕바위 쪽까지 뛰어오다가 멈춰 서서
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

그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
앞에서 나를 끌어 준, 작은 메뚜기를 봤습니다.

가만히 보니, 내 방에서 3개월 가까이 기른 메뚜기였습니다.

그 메뚜기는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지만,
내 방에서 기르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.

주변에 ‘사람’은 없었고 ‘메뚜기’만 있었습니다.

- ◆ 꿈속에서도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,
<메뚜기>가 홀연히 ‘사람 형상’으로 변하면서 빛이 났습니다.

그러더니 ‘흰옷을 입은 거대한 신의 몸’으로 보였습니다.
얼굴은 빛이 강해서, 잘 안 보였습니다.

- ◆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.

선생은 내 방의 메뚜기를 잡고,
이리저리 위치를 옮겨 봤습니다.

특히 메뚜기가 내 방에서 경사진 높은 곳으로 갈 때,
선생이 뒤에서 밀어 주어 어디든지 가게 해 봤습니다.

그러면 메뚜기가 가만히 있어도,
내 도움을 받아서 순간 거뜰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.

내가 메뚜기를 그렇게 대했듯이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‘메뚜기 같은 입장의 나’를

올해도 필요할 때마다 그리 대할 테니,
최고로 실천하며 뛰라는 꿈 계시었습니다!

- ◆ 올해 섭리인 모두 최고로 뛰어야
겨루는 자가 쫓다가 포기하게 된다는 꿈 계시었습니다.

또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잡고
앞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니,
목적지를 두고 뛰라는 꿈 계시었습니다.

절국은 이기고 승리한다. 고로 뛰어라.
승리해야 그때마다 줄 것을 준다는 꿈이었습니다.

- ◆ 이것을 깨달으니, 꿈이 사라지면서 꿈에서 깬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꿈에서 깨고,
이 꿈이 <올해 나와 섭리사의 꿈>인지 기도하며 확인했습니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
“시간적으로 봐도 1월 1일 새벽에 꾸 꿈이니,
이 꿈이 ‘올해 섭리사의 꿈’ 이 맞지 않느냐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올해의 꿈>을 잊으면 안 됩니다.
작년에도 꿈을 잊어서 못 이루고 끝난 자들이 많습니다.
올해는 절대 이 꿈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됩니다.
그래야 승리하고,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합당하게 주시어 얻습니다.

- ◆ 뒤에서 누가 쫓아오니,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두르고 재촉하면서 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.

그러면 앞에서 삼위가 이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준다는 것입니다.

- ◆ 여러분이 방에서 기르는 곤충이 있는데, 누가 잡으려고 쫓아오면 얼마든지 손으로 곤충을 잡고 순간 이동시키며 능력을 부리지 않겠습니까?

높은 데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,
순간 손으로 떠밀어서 어디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
<삼위와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자>를 돕고,
<열심히 실천하는 자>에게 꼭 역사하여 이끌어 주고
결국 승리하게 해 준다는 ‘약속의 꿈 계시’입니다.

- ◆ 꿈을 풀면 신기하고 오묘하며,
세밀하고 자세히 사건을 이해시켜 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꿈에 <나와 겨루던 상대>는 ‘범석 목사’로 보였습니다.
왜 ‘범석 목사’로 보였는지 풀어야 됩니다.
<범석이>가 아니라 ‘상징’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.

- ◆ 범석이는 ‘마라톤 선수’라서 잘 뛰니다.
그래서 ‘범석 목사’로 보여 준 것입니다.

만일 <나와 겨루던 자>가 ‘일반 사람’이었으면,

내가 그렇게 숨 가쁘게 안 뛰어도 됩니다.

아무리 ‘내게 일격을 가할 정도로 겨루는 자’ 와 겨뤄도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우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.

- ◆ 또 범석 목사는 ‘선생의 형제’ 이지요?

이와 같이 <신앙의 형제> ‘기성’ 과 겨루고,
<이방의 형제> ‘세상 사람들’ 과 겨룬다는 것입니다.

하나님 입장에서 보면,
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‘형제자매’ 입니다.

<신앙의 형제자매>, 혹은 <이방의 형제자매>입니다.

- ◆ 고로 이 꿈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.

“새 시대 섭리역사는
<삼위>가 머리이며 주인이니, <삼위>는 너희 편이다.

고로 ‘하나님 안의 형제자매들’ 과
절대 ‘육적 싸움, 혈기 싸움’ 하지 말고,
육적으로 영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뛰어라.

그리함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겨라.”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올해는 ‘닭처럼 때를 알리며 실천함으로
꿈을 이루는 해’ 가 되기를 바랍니다.

- ◆ 승리가 예정됐어도 육신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됩니다. 아멘!

하나님과 성령님이 ‘올해의 꿈’ 을 주셨으니,
잊지 않고 실천하면 ‘이 꿈’ 같이 됩니다.

고로 목적지를 두고 실천하면서,
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!

삼위가 절대적으로 함께하여 밀어 주시고 끌어 주십니다.

- ◆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봤지요?

앞에서 뛰며 쫓기는 자도, 뒤에서 뛰며 쫓아가는 자도
떨 때 절대 탄짓을 안 합니다.

뛰면서 연애하는 데, 자는 데, 먹는 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.

또 뛰면서 각종 미디어를 보며 즐기지도 않습니다.

누가 무슨 말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

누가 욕을 해도, 뭘 던져도 안 쳐다봅니다.

순간 쳐다보면, 뒤에 쫓아오는 자에게 따라잡히기 때문입니다.

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.

그래서 ‘뛰는 것, 쫓기는 것’ 으로 제시한 것입니다.

목적지를 향해 떨 때만큼은 집중해서 행해야 됩니다.

- ◆ 올림픽 경기를 하는 자같이 뛰어야 됩니다.

괴한에게 쫓길 때같이 뛰어야 됩니다.

산에서 산짐승에게 쫓길 때같이 뛰어야 됩니다.

미친개에게 쫓길 때같이 뛰어야 됩니다.

사냥할 짐승을 쫓듯 뛰어야 됩니다.

곧 떠나려는 비행기를 타러 달리듯 뛰어야 됩니다.
신호등의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듯 뛰어야 됩니다.

그러면 자기의 일도, 각 교회와 각 부서의 일도,
섭리사의 일도 잘되고 승리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뛰는 자, 실천자>와 함께하십니다!

<전환>

- ◆ 다음 날, 한 꿈을 더 꿔습니다.

섭리사의 예쁜 한 여자가 나와 가까이 대화하는데
옷이 더럽고 우중충했고,
말을 하는데 앞니가 부러져 있고,
송곳니가 바람결에 나무가 넘어지듯 넘어져 있었고,
이를 안 닦아서 냄새가 났습니다.

이것을 보고 “왜 치과에 안 갔냐?” 하니,
“돈이 없어서요.” 했습니다.

그래서 “내가 해 줄게.” 했습니다.

- ◆ 꿈에 이 예쁜 여자는 ‘조은 목사’로 보였습니다.
왜 ‘조은 목사’로 보여 줬는지, 역시 풀어야 됩니다.
- ◆ 이 꿈을 꾸는 날, 선생이 ‘새벽기도 시간’을 못 지켰습니다.
이때 깨닫고 기도했습니다.

‘조은이는 ‘하늘의 신부 대표 상징’ 이지.

내가 ‘하늘 신부’니까, 그 여자가 ‘나’ 구나.

내가 ‘꿈에 나온 그 여자’ 이구나.

내가 이러면 안 되지. 잘하자.

이런 꿈 안 꾸게 실수 없이 열심히 하자.’ 하고,

삼위 앞에 회개하고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.

- ◆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데,
서로 ‘주장’ 이 달랐습니다.

그때 이 꿈이 스쳐 가면서 연관되어 깨달아졌습니다.

“이 사람이구나! 그동안 겪어 보니 맞아!” 100% 확인했습니다.

<꿈>은 ‘현실과 연관’ 이 되고 ‘연결’ 이 돼야 합니다.

이 사람은 ‘나와 애인같이 지내는 형제’ 인데,
나와 ‘생각’ 도 다르고 ‘주장’ 도 달랐습니다.

그래서 그 사람을 꿈으로 보여 주시고,
그 사람의 ‘입’ 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.

- ◆ 조은 목사는 <섭리사 대상 대표>로서 ‘사랑하는 자’ 입니다.
고로 ‘하늘 신부들, 섭리인들’ 을 상징합니다.
또 ‘전도된 생명들’ 을 상징합니다.
확대하면 ‘세상 사람들’ 을 상징합니다.
그래서 ‘조은 목사’ 로 보인 것입니다.

- ◆ <섭리사 사랑하는 하늘 신부들>이
주와 생각이 다르거나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,
꿈에 나온 여자와 같다는 뜻입니다.

참 신기하고 신통하지요?

- ◆ 누구보다 <섭리인들>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사랑의 주체’ 이시고,
<섭리인들>은 ‘신부’ 입니다.

신부인데, 사랑하는 자 앞에 말만 하고 큰소리만 치면서
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멀어집니다.

- ◆ 내 형제든 아니든, 섭리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
꼭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.

약속을 잊으면, 시간이 있는데도 놀면서 안 하게 됩니다.

- ◆ 올해는 ‘실천의 해’ 이지요? 꼭 실천해야 됩니다.
꿈을 두고 실천하고,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.

- ◆ 올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니
“그때마다 주일, 수요일, 새벽에 말해 주겠다.” 하셨는데,
꼭꼭 단상을 통해 ‘실천할 것들’ 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

“<조은이>가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되겠냐.

이와 같이 <하늘 신부들>이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면 되겠냐.

그래서 <대상 상징, 조은이>로 꿈에 보여 줬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또 말씀하시기를

“얼굴은 예쁜데, 이가 부러지고 뒤틀어져 있으면 되겠냐.

다른 사람도 아니고 <사랑하는 자>인데,
사랑하는 자가 ‘돈’ 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두겠냐.

<돈>은 ‘의’ 가 아니냐.

<사랑하는 섭리인들>이 ‘의’ 를 행하도록
<말씀>을 더 해 주지 않겠느냐.

그리함으로 섭리인들이 의를 행하도록 돕지 않겠느냐.

또 <돈>이 ‘시간’ 이 아니냐.

사랑하는 섭리인들에게 ‘시간’ 을 내주어
편지도 해 주고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.

조은이라면 안 해 주겠느냐.

고로 <조은이>로 보여 주었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

“작년에도 “내가 같이 해 줄게.” 하고 해 줬듯이,
올해도 그렇게 해 줘라.

<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>이 있으니
그들의 손을 잡고 높은 차원까지 올려다 주고,
그들이 평지로 나오면 “이제부터 네가 해라.” 하듯
도와주며 함께 해 주어라.”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꿈을 꾼도, 이같이 풀기를 잘 풀어야 됩니다.

자기 의지대로 풀면, 절대 안 됩니다.

자기 의지대로 꿈을 풀면,

꿈에 나온 사람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

조은이와 범석이로 나왔지만, ‘꿈의 실체 대상’은 아닙니다.

<두 증인>으로서 선생이 사랑하니,

그들을 꿈에 보여 주며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‘그 사람’을 비유로 들어 계시하면,
그 사람이 그러하다고 잘못 풀니다.

꿈은 정말 잘 풀어야 됩니다.

꿈을 자기 사고로 잘못 풀면

<꿈에 나타난 사람>을 ‘적’으로 보게 됩니다.

혹은 ‘자기’로 잘못 풀면,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.

선생도 처음에는 ‘선생 자신’으로 잘못 풀었다가,

현실에서 겪어 보고 현실과 연결하여 다시 풀었습니다.

<꿈>을 꾸면,

하루 종일 ‘현실에서 오는 것’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.

- ◆ <계시를 잘못 푸는 자들>은

성경의 ‘재림, 심판, 부활, 말세’를 잘못 풀어 고통받고,

그로 인해 ‘주’를 맞지 못하는 무지한 저 기성인들과 같습니다.

- ◆ 꿈을 꾸면 - 왜 ‘그 사람’으로 보였는지 알아야 되고,

모르면 꼭 물어봐야 됩니다.

- ◆ 연기할 때도 ‘가상’ 으로 그 사람을 꾸며 내어 만들지요?
이와 같이 꿈에서도 영체의 현상을 ‘가상’ 으로 꾸며서 만듭니다.
고로 꿈에 나왔다고 해서 ‘실제 그 사람’ 이 아니고,
‘그 사람의 영혼’ 도 아닙니다.

가상으로 꾸며서 만들어 ‘깨닫게 하는 데’ 목적을 둡니다.

- ◆ 어느 때는 <국가의 천연 동굴>을 ‘아름다운 산’ 으로 보여 주며,
그 산을 오르게 합니다.

어느 때는 <교회 건물>을 ‘큰 뱀’ 으로 보여 주면서
그 뱀을 잡으면 ‘그 성전’ 을 구하기도 합니다.

- ◆ <꿈>도 중요하고, <해몽>도 중요합니다.

그래서 이번 <17기 신학>에서는
<꿈 계시>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신학 이야기가 나왔으니, 잠깐 몇 마디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.

- ◆ <17기 신학생>은 특별히 700명을 뽑습니다.
한국만 700명이고, 해외는 각 나라에 맞게 뽑습니다.

그동안 ‘신학’ 을 했어도 실제로 ‘실천’ 은 못 했습니다.
이번 신학부터는 정말 ‘**실천 신학**’ 을 해야 됩니다.

<실천 신앙>을 하면서, 졸업 전에 ‘각자 3명’을 전도하여 삶에서 개척 목회 하기가 목표입니다.

그래서 <17기 신학생>은

‘**졸업 전에 전도 3명을 할 자들**’을 우선권으로 뽑습니다.

물론 ‘**나이**’도 봅니다.

- ◆ 선생도 처음에는 한두 명 전도해서 가르쳤습니다.
어느 때는 1년에 30명씩 전도해서 관리했습니다.
시대 복음은 1년에 1만 명에게 전해 졌습니다.
어렸을 때부터 ‘**실천 신학, 실천 신앙**’을 했습니다.
- ◆ <이번 신학생들>은 선생이 직접 가르쳐서
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관리하며 목회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.
- ◆ 3명 전도하고 나서 또 하면 됩니다.
그렇게 10명 전도하면, ‘개척 교회 하나’를 만드는 것입니다.

한국에서만 700명이 3명씩만 전도해도
<100명 교회> ‘21개’를 세우게 되고,
<개척 교회> ‘210개’를 세우게 됩니다.
- ◆ 역사적으로 ‘17년도가 들어간 해’에는
<혁명>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

(몇 가지 나열할 것 : 생방송 설교 때 전하겠음)

올해는 <2017년도>입니다.

모두 ‘실천 신앙’ 을 하면서 ‘자기 혁명’ 을 일으키기 바랍니다.

또 신학도 <17기 신학>입니다.

모두 ‘실천 신학’ 을 하면서,

주와 함께 ‘전도 혁명, 자기 혁명’ 을 일으키기 바랍니다.

- ◆ 나머지 자세한 것은 ‘신학 강의 때’ 해 주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이제 <하나님의 날 주간>이 끝났습니다.

이제 또 기도해야 됩니다.

<차원 높은 휴거 잔치 3.16>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.

이번에는 <70일 기도>입니다.

선생은 1월 16일부터 70일 기도를 시작했으니,

모두 며칠 늦었지만 바로 시작하기 바랍니다.

- ◆ 하나님이 ‘행할 것’ 을 주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. 왜요?

기도하라는 것은

또 줄 것이 있으니 조건을 세우라는 계시입니다.

- ◆ 작년에 <110일 기도>를 해 보니,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깨달았지요?

기도하니,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뺏기지 않고 얻었습니다.

기도하니, 섭리사와 각 교회들과 민족과 세계에

하나님이 손을 대 주셨습니다.

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손을 대서
<불법과 불의>는 드러내어 심판하시고,
<의>는 승리하도록 더욱 함께하십니다.

- ◆ 작년에 한국의 국민들은 ‘촛불집회’를 하며,
한국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염원했습니다.

<촛불>은 ‘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촛대’와 연관됩니다.

계시록 2장 5절을 보면,

『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
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
내가 네게 가서 네 **촛대**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.』 했습니다.

- ◆ <촛대>를 옮긴다 함은
<사명>을 옮긴다, <하나님의 뜻>을 옮긴다 함입니다.

주권자와 국회와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,
하나님은 ‘그들의 촛대’를 옮기셨습니다.

그로 인해 ‘한국의 주권 당’도 쪼개졌고,
‘주권자의 사명’도 옮겨졌습니다.

그 주권은 ‘정치를 제대로 깨닫고 심정을 태우면서 울며
베옷을 입은 자’에게 옮겨 갑니다.

- ◆ 섭리사도, 각 개인도, 교역자들도 그러합니다.

회개하지 않고, 제대로 안 하고,
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‘촛대’를 옮깁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오늘은 <2017년 섭리사의 꿈>에 대해 말씀했습니다.

마치 경주하며 겨루듯, 목적지를 향해 뛰어라.

너희가 뛰고 실천하면, 삼위가 밀어 주고 끌어 준다. -했습니다.

그러나 어떤 환난 때나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,
생활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며 겨루라는 것입니다.

빨리 뛰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.

경주하는 자는 누가 옆에서 뛰라 해도
빨리 뛰어야 승리합니다.

◆ 올해는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라고 했지요?
또 빛을 잡듯 실천하라고 했습니다.

주를 머리로 삼고 영적으로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면,
빛같이 빠르게 실천합니다.

생활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며 겨룬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,
경주하는 자는 빨라야 승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,
영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빛같이 빠르게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!

◆ 2016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
번개같이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여 ‘성전’도 샀습니다.

어떤 교회는 시간을 다투며, 순간 보고 순간 계약했습니다.

순간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여 얻었습니다!

- ◆ <기회>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, 시계처럼 빨리 갑니다.
그 기간이 ‘잠깐’입니다.

고로 <순간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>이 성공 비법입니다.

빠르게 오는 공을 패스받아서 순간 골문에 넣으려면
미리 공을 받기 위해 뛰면서 준비하면 됩니다. 그러하듯
순간 왔다 가는 기회의 때에 순간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려면,
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면 됩니다.

- ◆ 선생도 조은 목사를 전도할 때,
순간 ‘3분’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.
그때 전초하고, 말씀의 핵을 1분 정도 전해 줬습니다.
그것으로 시작됐습니다.
그때 순간 안 했으면, 사탄에게 뺏겼습니다.
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.

고로 늘 기도하고 준비했다가,
기회가 왔을 때 순간 판단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.

- ◆ 모두,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꿈을 두고 실천하여
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